

즐거움 100배! 전시 감상 가이드

일본 궁정 문화



교토는 헤이안시대(794-1185)에 도읍지가 되면서부터 이후 메이지 유신 시기까지 약 1100년 동안 천황이 살던 곳입니다. 천황의 거처였던 교토 고쇼(京都御所)는 일본 문화를 낳고, 널리 펼치고, 오래 전승해 온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궁정은 해외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문화를 키우는 중심지로서 존재했습니다.

이 전시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와 레이와 시대가 열린 것을 기념하여 황실과 관련 깊은 교토에서 개최한다란~!
이 가이드로 작품을 감상하며 교토 고쇼의 궁정 문화를 느껴보면 좋겠다란~!



‘즉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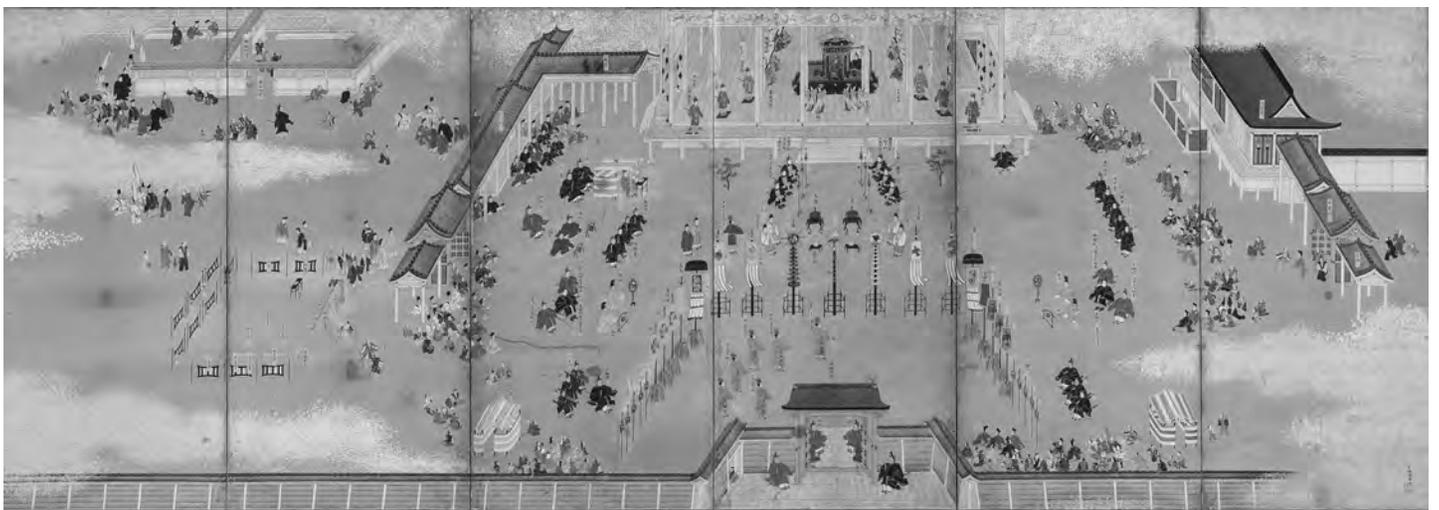
‘즉위’란 새 천황이 천황이라는 ‘지위’를 얻는 것으로, ‘즉위례’ 의식은 새 천황이 즉위했음을 만방에 널리 알리는 의식입니다. 즉위례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지만 특히 메이지시대(1868-1912)에 크게 달라졌습니다. 레이와시대(2019-)를 연 현대적 즉위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에도시대(1615-1868)에 교토 고쇼에서 치러진 즉위례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레이겐 천황 즉위식·고사이 천황 양위식 병풍>이 바로 그것입니다(11/3~11/23 전시).

이 한 쌍의 병풍 중에서 오른쪽 폭은 1663년에 치러진 레이겐 천황 즉위식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건물, 의식에서 쓴 도구, 인물에 각각의 명칭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어떻게 열렸고 어떤 사람들이 참가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지요.

시신덴 궁전에 놓인 옥좌에 앉은 레이겐천황의 모습

- 사시바는 긴 자루를 단 부채로 천황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사시바에 가려져 있던 천황이 모습을 드러내며 즉위식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릅니다.
- 천황의 얼굴을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그린 작품은 없습니다. 당시 천황은 10살. 귀여움도 살짝 보이네요.
- 금속과 옥으로 장식한 면류관을 쓰고 붉은 예복을 입은 천황의 모습을 보면 중국 의례에서 받은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레이겐 천황 즉위식·고사이 천황 양위식 병풍> 오른쪽 폭 가노 에이노 그림 에도시대 17세기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후기 전시]



즉위식을 구경하는 평민들
당시에는 즉위식을
평민에게도 공개했습니다.

전시실에서 에도시대(1615-1868)
천황의 예복과 면류관을 실제로 볼
수 있대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한자와 ‘가나’

일본의 궁정은 대륙에서 들어온 중국적 ‘한(漢)’의 문화를 배우고, 일본의 ‘와(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대륙 문화와 일본 자국 문화는 때로는 나란히 때로는 섞이며 궁정 문화로 존재했습니다. 천황은 대륙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를 익혀서 많은 이들을 이끄는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대륙 문화와 일본 문화의 만남을 잘 알려주는 예가 바로 일본 전통 시가집 『만요슈(萬葉集, 만엽집)』입니다.

『만요슈(萬葉集, 만엽집)』는 나라시대(710-794)

끝 무렵에 성립했다고 전해지는 시가집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중국에서 전해진 한자로 일본어를 표현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쓰여진 『만요슈』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를 옮겨적은 ‘필사본’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필사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가쓰라노미야본 만요슈>, 두 번째로 오래된 <남지본 만요슈>(밧의 사진, 10/10~11/1 전시)를 선보입니다.

둘 다 헤이안시대(794-1185)의 작품입니다.

『만요슈』에서 쓰는 글자, ‘만요 가나’

あし
の
や
葦屋
之
宇
奈
比
處
女
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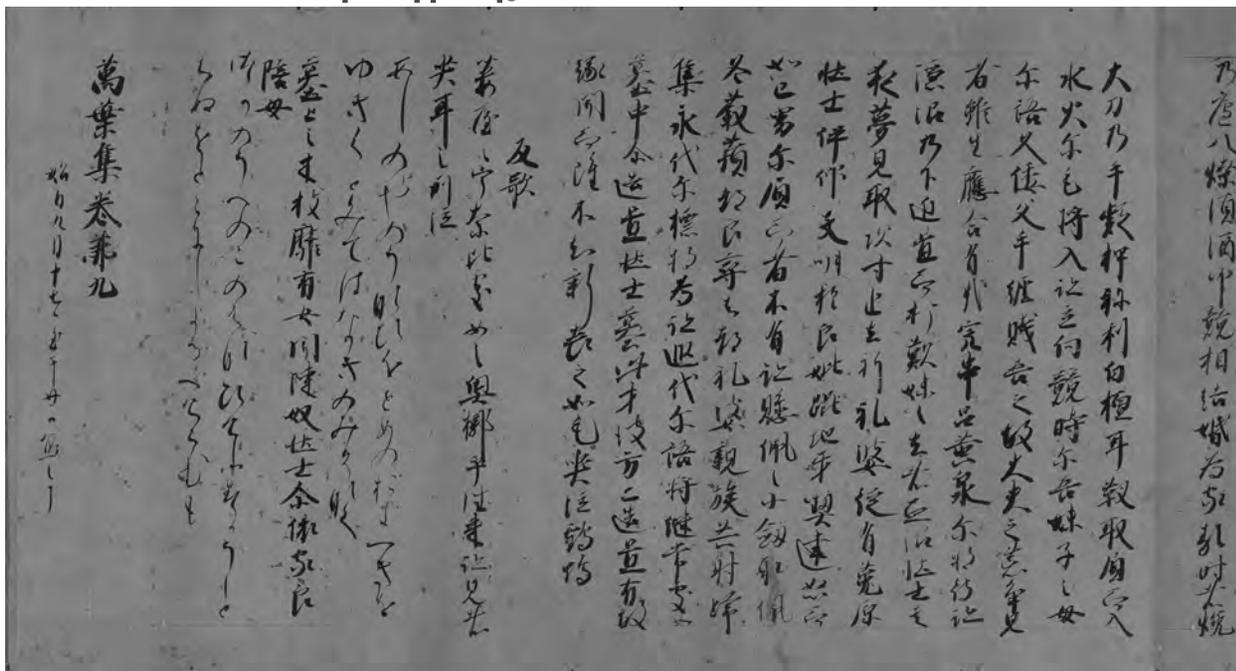
한자의 뜻 부분과 상관없이
한자 하나가 일본어 음 하나
를 나타냅니다.
만요 가나가 점차 변하여
한자의 모양을 변형시킨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되었
습니다.

(의미: 아시노야에 사는 우나히 아가씨의)

오른쪽 원문의 발음과 뜻 이해를
적은 ‘히라가나’

음만을 나타내는 ‘만요 가나’를
포함하여 모두 ‘한자’로 쓴 원문

바탕종이가 남색이어서 ‘남지본’이라고 부릅니다.



두루마리 끝부분에 ‘9월 17일에 필사를
시작하여 20일에 끝냈다’는 기록이 있어,
10m가 넘는 긴 두루마리의 필사를 겨우
4일 만에 완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요슈』가 성립한 나라시대(710-794)
사람들의 기록을 헤이안시대(794-1185)에
이미 판독하지 못한 탓에, 이 부분의 원문
에는 히라가나 풀이 기록이 없습니다.

국보 <남지본 만요슈(萬葉集, 만엽집)>
제9권 잔권 (부분)
후지와라노 고레후사 씀
헤이안시대 11세기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전기 전시]

일본의 새로운 연호 ‘레이와(令和)’
는 『만요슈』에서 따왔다고 해!



헤이안시대를 동경하다

‘히교샤’는 교토 고쇼의 궁전 가운데 하나로 황후와 후궁의 거처였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잇는 안뜰(壺, 쓰보)에 등꽃나무(藤, 후지)를 심은 것에서 유래하여 ‘후지쓰보(등꽃나무 안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헤이안시대(794-1185)에 쓰인 궁중 이야기로 유명한 『겐지 이야기(겐지 모노가타리)』에서 주인공인 히카루 겐지가 사모하는 ‘후지쓰보노미야’의 거처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겐지 이야기』의 작가인 무라사키 시키부(생몰년 모름)는 궁녀였는데, 무라사키 시키부가 모시던 황후 ‘후지와라노 쇼시(988-1074)’도 히교샤에서 살았습니다.

중요문화재 <겐지 이야기[겐지 모노가타리] 화첩> 4첩 가운데
 갑첩 <매미 허물> 부분
 그림: 도사 미쓰요시·조지로 설명글: 고요제이 천황 및 그 외
 모모야마시대 17세기
 교토국립박물관 소장 [전기간 전시]



헤이안시대의 생활 모습

되살아난 ‘히교샤’

히교샤 건물은 헤이안시대(794-1185)에는 황후와 후궁들의 거처이자, 천황의 부인이 되는 예식을 거행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이후, 소실되어 오랜 기간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에도시대 후기인 1794년에 재건되어 헤이안시대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때의 건축은 주거보다도 예식 장소 기능을 특화하여 만들었습니다.

에도시대(1615-1868)는 일본의 옛 문화를 되살리려는 국학 열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히교샤 건물 재건과 예식 재현이 시도되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화재로 타버렸지만 1855년에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에 이릅니다.

현재 히교샤 건물은 안타깝게도 비공개이지만, 이번 전시에서 에도시대 히교샤에서 쓴 생활 도구와 가구를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히교샤의 나날들과 예식 모습을 떠올려볼 수 있겠지요.



히교샤 세간살이 가운데
 (위 사진) <소나무를 입에 문 새 무늬 마키에 나전 이단 선반 수납장 및 향나무 베개>
 (아래 사진) <소나무를 입에 문 새 무늬 마키에 나전 이단 탁자>
 에도시대 간세이 6년(1794) 혹은 안세이 2년(1855)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전기간 전시]

이 감상 가이드에서 소개하는 작품은 모두 1층 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令和2年度 文化庁
 地域と協働した博物館創造活動支援事業